

---

# 해 외 배 낭 연 수 결 과 보 고

---

# 목 차

I . 연수개요	1
II . 연수일정 및 내용	2
III . 연수국가 일반현황	3
IV . 연수내용	6
V . 시사점 및 연수후기	14
VI . 증빙자료	16

# 해외(그리스) 배낭연수 결과보고

## I 연 수 개 요

○ ( 연 수 기 간 ) 2019. 5. 31.(금) ~ 6. 8.(토)

○ ( 연 수 국 가 ) 그리스

○ ( 연 수 목 적 )

- ❖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무분별하게 입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로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리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정책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함.
- ❖ 전국 지자체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암민속마을 및 지중해마을 등 관광명소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그리스 관광산업의 선진 사례를 통해 우리시 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및 적용 가능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함.

○ ( 연 수 분 야 )

-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관광사업 활성화방안 등

## ○ ( 연 수 자 명 단 )

소 속	직 급	성 명	역할 및 임무
건설과	시설7급	이성복	사전회의 및 연수총괄
도시계획과	시설7급	임용훈	일정계획 및 교통분야
사회복지과	복지7급	김은미	회계 및 숙박예약
염치읍	임기제 마급	김인희	의료, 교통 및 안전담당
도로과	시설8급	박기용	자료수집 및 분야별 접목방법 연구
총무과(파견)	녹지8급	유철규	자료수집 및 결과보고서

## Ⅱ 연 수 일 정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연수 일정 및 장소
제1일 5/31(금)	인천	항공	출국 [인천 국제공항]
	그리스 아테네		입국 [그리스 아테네 국제공항]
제2일 6/1(토)	그리스 아테네	대중교통	아크로폴리스, 로마&고대아고라 견학
		대중교통	제우스신전, 수니온, 근대올림픽경기장 견학
제3일 6/2(일)	그리스 아테네	대중교통	국회의사당 무명용사의 비 견학
		대중교통	아테네학술원아테네대학교 방문
제4일 6/3(월)	그리스 미코노스	페리	미코노스섬 이동
		대중교통, 도보	파라포르니아니교회, 카토밀리(풍차) 방문

제5일 6/4(화)	그리스 미코노스	대중교통	미코노스 근교 관광
		도보	에게해 해양 박물관 견학
제6일 6/5(수)	그리스 산토리니	페리	산토리니섬 이동
		대중교통	피라마울 도착, 메트로폴리탄 정교회 대성당 및 테오토코폴루광장 방문
제7일 6/6(목)	그리스 산토리니	대중교통	이아마을 이동
		도보	유명 CF의 배경장소, 해안절벽 위에 세워진 파란 지붕의 정교회 성당 관광
제8일 6/7(금)	산토리니	항공	그리스 아테네 국제공항 이동
	아테네	항공	출발 [인천 국제공항]
제9일 6/8(토)	인천	항공	도착 [인천 국제공항]

### Ⅲ 연 수 국 가 일 반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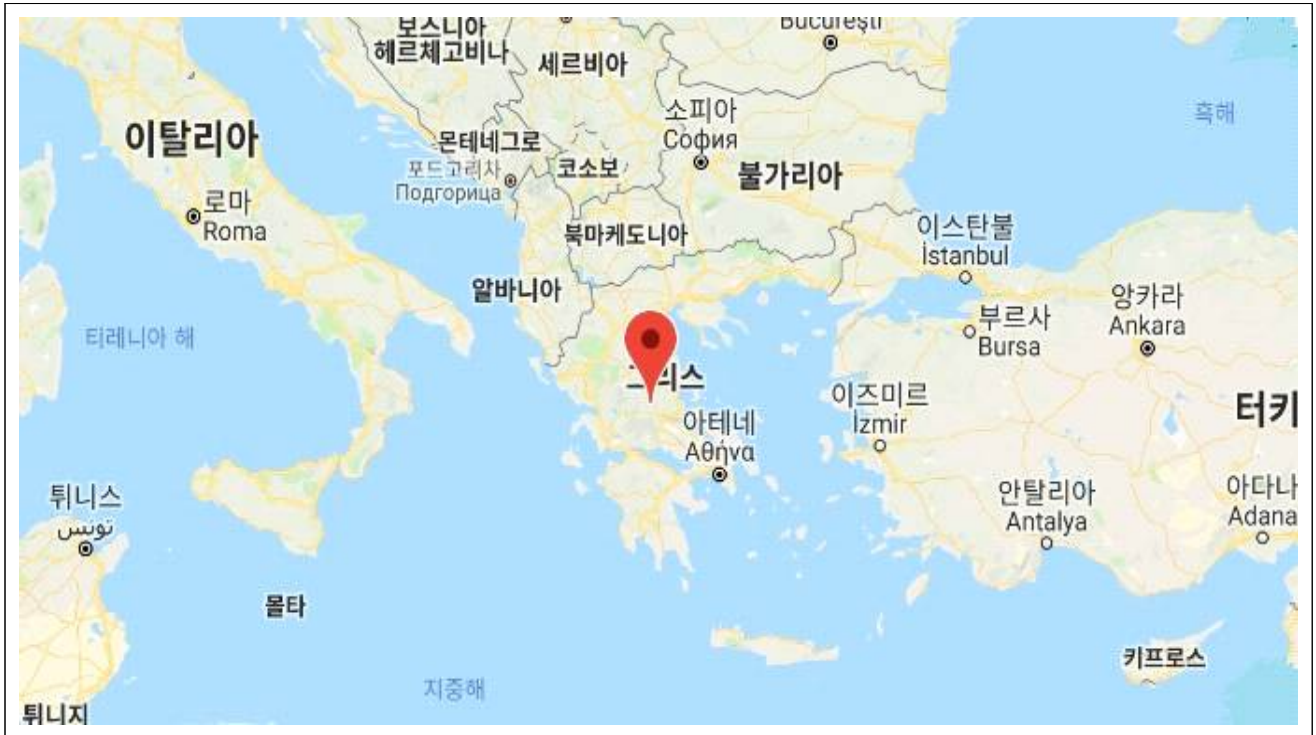
그리스 [Greece]



- 원 어 명 : Greece
- 수 도 : 아테네
- 면 적 : 131,957,0km<sup>2</sup>
- 인 구 : 11,142,161명
- 민족구성 : 그리스인(98%), 기타(2%)

○ 그리스 수도는 아테네, 북쪽 국경을 따라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알바니아·유고슬라비아·불가리아가 있으며 동쪽에 터키가 있다.

- 반도인 그리스 본토는 남서쪽은 이오니아 해, 남쪽은 지중해, 동쪽은 에게 해가 둘러싸고 있다. 지중해에 이 나라 최대의 섬인 크레타(크리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266km로 뻗어 있으며 섬과 반도사이에는 크레타 해가 있다.



- 그리스의 자연환경은 전영토의 1/5을 차지하는 1,400개 남짓한 섬들과 총길이 4,000km를 넘는 울퉁불퉁한 해안선을 가진 그리스 경관은 바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도의 내부 중 작은 썰기 모양의 땅만이 바다로부터 8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평지는 전체면적의 1/4에 못 미치며 그 대부분이 에게 해에 접해 있는 해안평야이다.
- 그리스의 인구는 1976년 연인구증가율 1.5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연인구감소율 0.7%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인구수는 1,114만 2,161명이며, 인구밀도는 84명/km<sup>2</sup>이다. 15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며, 도시거주자의 비율이 높아 전체 인구 중 4/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 그리스의 경제는 선진 개발도상국으로 민간기업이 경제를 주도한다. 1983년의 국민총생산(GNP)은 357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3,624달러였다. 농업이 GNP의 1/7을 차지하며 총노동력의 28%를 고용하고 있다. 경작지는 약 1/4이 관개를 필요로 한다.

그리스의 정치와 사회는 의회민주주의 체제로, 1975년 헌법은 300명으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형식적 의무를 가지는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자문기관인 국가협의회를 동의를 얻어 내각을 해임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최고 사법권은 대법원·국가평의회·회계감사위원회가 가진다. 주요정당은 민주중도연합당·신민주당·범사회주의운동당·연합좌익동맹당 등이다.

- 그리스의 역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대 그리스는 서구문명의 산실이었다. 어떠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 업적은 놀라운 것이며 예술 및 과학에서 남긴 유산은 막대하다. 그러나 그리스의 초기는 불운했다.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으나 청동기시대 역사(BC 3000~1000)는 동방과 이집트의 거대한 제국들에 비해 보잘 것이 없었다. 이후 20세기 그리스 정부의 특징은 정치적 불안정이다. 1924년에 공화국임을 선포했으나 1935년에 군주제가 부활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내전이 일어나 1949년에 공산주의 세력이 패배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스 내전). 1967년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군사정권은 1973년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했지만, 같은해 말에 전복되었다. 그후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정부가 정치를 담당하고 있다.

## IV 연 수 내 용

### 1. 그리스 아테네

#### ○ 아크로폴리스(Acropolis) 견학

❖ 아크로폴리스란 도시 국가 폴리스에 있는 높은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높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크로(akros)’에서 유래되었다. 대부분 폴리스 중심에 있던 아크로폴리스에는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웠고, 신앙의 중심지는



아크로폴리스 입구

물론 전쟁 때에는 군사적 요충지로도 사용했다.

흔히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면 이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아테네의 것을 말한다.

모나스티라키 광장에서도 보이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으로 아크로폴리스라고 한다.

❖ 디오니소스 극장은 아크로폴리스 남쪽에 있으며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모든 그리스 고전연극이 이곳에서 초연되었다. 중앙에 제단을 세우고 지름 18m가 넘는 원형 토단으로 된 합창대석(orchestra)을 설치한 것이 발전된 것이다. 자연의 신(神) 신전과 다산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과 이웃한 합창대석은 해마다 봄이 되어 의식행렬과

희생제 등 신에게 올리는 축제가 거행될 때 한몫을 했다. BC 5세기에 이 극장은 소포클레스·에우리피데스·아이스킬루스, 그리고 디오니소스 극에서 발전한 아리스토파네스 연극의 경연장이었다. 그 당시 관람석은 언덕 비탈에 나무의자를 놓아 만든 것으로 여겨지며, 무대 또는 연극의



배경으로 쓰였던 구조물은 합창대석 맞은편에 있었다. BC 4세기 중엽에는 1만7,0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돌로 만든 계단식 좌석이 만들어졌



으며 돌로 된 무대 뒤 구조물도 더욱 높아졌다. AD 61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무대를 높이는 등 극장구조를 크게 바꾸었다. 4세기를 지나면서 극장이 사용되지 않게 되어 퇴락했다. 1765년 다시 발견되었고 1800년대 후반 고고학자이자 그리스 건축 권위자 빌헬름 뢰르펠트의 감독하에 고고학적복원이 이루어졌다.

❖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 파르테논 신전 아래에 위치한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Odeion of Herodes Atticus)은 고대 아테네의 귀족인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죽은 아내를 추모하여 161년에 아테네 시민에게 기증한 음악당이라고 한다. 이곳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은 자연을 이용한 음향장치를 사용한다고 하며, 지금도 조명시설만 갖추면 축제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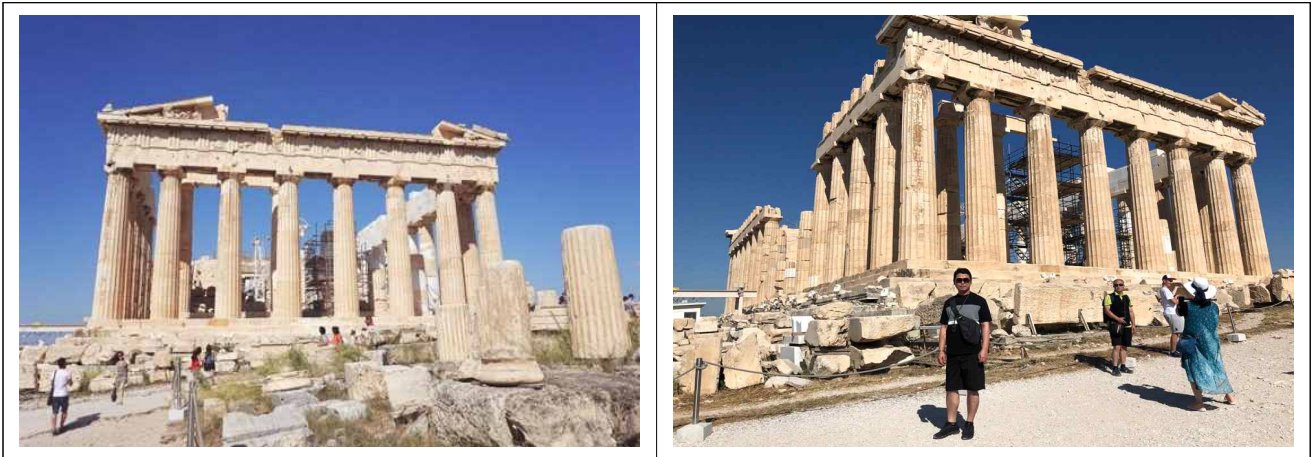


#### ❖ 파르테논 신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네에게 바친 신전으로,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다. 도리스 양식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파르테논 신전은 얼핏 보기에는 직선과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둥의 간격을 균일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시각 효과에 따라 다르게 조절하는 등, 사람의 착시까지 감안하여 곧바르고 균일하게 보이는 과학적인 건축법을 이용했다.

파르테논 신전이 건설된 자리에는 원래 아테네 여신의 옛 신전으로 역사가들은 이를 옛 파르테논 신전(Pre-Parthenon)이라 칭하는 건물이 있었으나,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되었다. 여타 그리스의 신전과 마찬가지로 파르테논 신전도 국가 금고로 쓰였으며, 특히 이곳은 한때 델로스

동맹의 금고로 쓰였다. 기원후 6세기에 파르테논 신전은 성모 마리아에 봉헌된 기독교 교회로 쓰였다.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한 뒤에 1460년대 초에 모스크로 쓰였고 첨탑이 건설되었다. 1687년9월26일 파르테논 신전 안에 쌓아놓은 오스만 투르크의 화약 더미가 베네치아군의 포격으로 불이 붙었다. 화약이 폭발하면서 신전과 그 조각물이 크게 훼손되었다.



❖ 고대&로마아고라 아고라는 ‘모이다’ 라는 뜻이다.

아크로폴리스(acropolis)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다면, 아고라는 일상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민 생활의 중심이었다. 아고라는 시장으로 경제 활동의 중심지였으며, 시민들이 사교 활동을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던 의사소통의 중심지였다. 학문과 사상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던 문화와 예술이 중심지였으며, 시민들이 민회를 열어 국방이나 정치 문제를 토론하던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유물을 이용해 배심원들을 무작위로 뽑았다고 한다.

또한 아고라에는 시민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시민법정이 있었다. 시민법정에서는 30세 이상의 아테네 시민들 가운데 추천으로 뽑힌 배심원들이 재판을 담당했는데, 매년 6,000명의 배심원들이 추천으로 선출되었다. 재판이 열리면 그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중에서 즉석 추천으로 재판을 담당할 배심원들이 선정되었다.

❖ 제우스신전 ‘올림피에이온(Olympieion)’ 이라고도 한다. 아테네 중심지에 있는 거대한 신전 유적으로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 바쳐졌던 신전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독재적인 참주가 국가를 지배하던 시기인 BC 6세기에 아테네의 정치가인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짓기 시작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이후 650여 년 후인 AD 2세기 로마제국 황제 하드리아누스 때에야 완공되었다. 로마시대에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으로 유명했지만 3세기경에는 이방인

들의 침략으로 약탈당했다. 이후 복원되지 못했으며 로마시대가 끝난 후 수세기 동안 신전 석재가 파내져 아테네 밖의 다른 건물들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

❖ 수니온 그리스의 아티카 반도 최남단의 곳(cape). 그 돌단부의 바다를 내려다 보는 단애 위에 예부터 해신 포세이돈의 성역이 있다. 지금도 B.C. 5세기 반경의 신전 대리석 원주 몇 개가 서 있다. 이 성역에서 출토한 코우로스의 거상(B.C. 600경, 아테네, 국립고고미술관)은 유명. 그 북쪽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테네의 신역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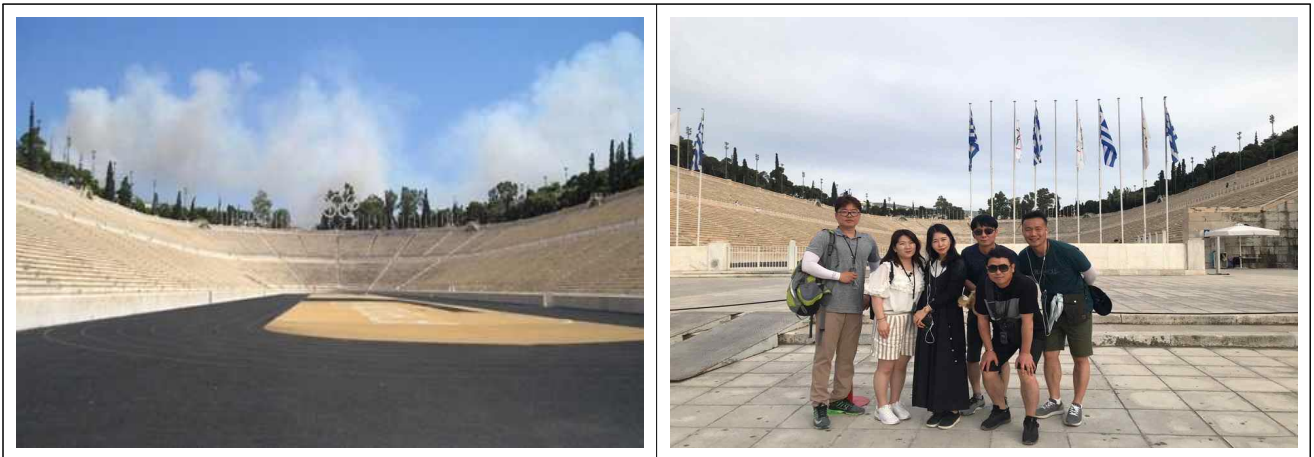


❖ 근대 올림픽의 산실, 판아테나이코스 경기장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의 동쪽에는 판아테나이코스 스타디온이 있다. 원래 스타디온(stadion, 경기장)은 그리스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측정 단위로 약 190m쯤 되는 거리였다. 그런데 고대의 경주에서는 거리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경주가 벌어지던 경기장도 그냥 스타디온이라고 불렀다. 현재의 경기장은 원래는 일리소스 강을 끼고 아그라 계곡과 아르데토스 계곡 사이에 자연스런 흠이 나 있어 이것을 스타디온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언덕의 경사면을 천연의 관중석으로 삼았다. 이곳에 구색을 갖춘 경기장이 들어선 것은 BC 330~329년에 리코우르고스에 의해 ‘위대한 판아테나이아 축제’의 운동 경기를 위한 스타디움으로 이용되었다.

그 후 경기장을 펜델릭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재건한 것은 140~144년 사이에



헤로데스 아티쿠스에 의해 스타디움이 복원되었는데, 아크로폴리스 남쪽 비탈에 헤로데스 음악당을 건설한 바로 그 사람이다. 경기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1895년에 복구한 것이다. 현재의 경기장은 고대 경기장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복원된 것이다. 이 경기장이 중요한 것은 규모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 때문이다. 이곳은 고대의 경기장과 현대의 경기장을 이어주는 가교였으며 고대 올림픽을 현대에 재현한 최초의 장소였다.



#### ❖ 국회의사당&무명용사의 비

국회의사당은 근대 그리스의 초대왕 오토의 왕궁이었던 건물로 19세기 신 고전주의 건축물이다. 인접하여 국립가든이 펼쳐져 있으며, 국회의사당 앞에는 무명용사의 비가 있고, 그 앞쪽으로 신타그마 광장이 있다. 그리스의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 발상의 상징물로 민주주의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Democratos(국민의 지배)’라는 말이 나왔듯이 그리스에서 기원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직접 민주주의에 그쳤다. 모든 시민들이 ‘입법의원’이 되어 직접 참여하였고, 여성은 선거권이 없었으며, 노예제도가 존속하고 있었다.



무명 용사의 비는 신타그마 광장 동쪽 아말리아스 거리 정면에 있다. 1923년 터키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비로, 앞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병들이 30분마다 교대식을 한다. 의장병이 신은 구두밑에는 징이 박혀있는데 걸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면서 희한한 품으로 교대식을

한다. 가만히 서있을 때는 옆에서 기념촬영도 가능하다.

## 2. 그리스 미코노스

### ○ 미코노스(Acropolis) 견학

❖ 미코노스 는 에게해의 많은 섬 중에 가장 대중화된 섬 중 하나이다. 유적은 없지만, 그리스의 아름다운 자연과 낭만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섬이다. 미코노스에 있는 마을 자체가 미코노스의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처음 정착한 민족은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던 이오니아인이었다. BC 426년 아테네인은 델로스 신전에 묻혀 있던 사람들의 유해를 미코노스 근처에 있는 레네이아로 옮겼다. 프랑크족이 지배하던 시기인 AD 1253년경에는 낙소스 공작가로 넘어갔으며, 그후에는 베네치아에 귀속되었다. 19세기초에 일어난 그리스 독립전쟁 때, 만토 마로게니우스가 이끄는 섬 주민들이 투르크의 공격을 물리쳤다. 중심 성당은 해안 근처에 있는 로코코 양식의 파라포르티아니 성당인데 구부러진 둥근 천장과 채색된 뿔족탑이 있는 예배당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섬에는 파라포르티아니 성당 외에도 약 360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것들은 선원과 그 가족들이 에게 해에 폭풍이 칠 때 신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세운 것이다. 가볼 만한 곳으로는 3개의 우물이 있는 광장인 트리아피가디아, 목조 발코니가 달린 고가가 길게 늘어선 베네치아, 풍차들이 있는 언덕 등이 있다. 미코노스 섬은 땅이 척박하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으며, 주요농작물은 보리·포도·무화과 등이다. 그밖에 망간이 나지만 관광이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그리스 전역에 널리 알려진 이 지역의 특산물로는 ‘아미그달라토’ 라고 하는 아몬드 과자와 손으로 짠 화려한 의상·냅킨·깔개 등이 있다. 아테네 미술학교의 분교가 자리잡고 있어서 세계 각지로 부터 학생들이 몰려온다.

❖ **파라포르티아니 교회** 풍차와 함께 미코노스 섬의 랜드마크가 된 파나기아 파라포르티아니 - 성모 마리아 교회 자그마한 다섯 개의 채플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리스 건축물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회이다.



‘파라포르티아니’라는 이름은 중세 시대 성채의 문뒤에 문, 뒷문을 뜻하는 파라포르티에서 따온 것으로 1207년에 섬의 요새와 함께 세워졌다가 15세기에 이르러 교회로 모습을 갖추었다. 처음 세운 교회에 시대에 따라 교회 건축물들이 조금씩 더해져 5개의 교회가 한덩어리로 뭉쳐있는데, 4군데 예배당은 지하에 한 개는 지상에 위치해 있다.

미코노스 성모교회, 파라포르티아니 교회는 1층 지상 예배당은 1425년경 건축되었다.

#### ❖ **에게해 해양 박물관**

미코노스에 있는 에게해 해양 박물관은 1983년에 설립되어 1985년 문을 열었다. 이 박물관은 상선 에노시스호를 소유했던 전설적인 인물 니콜라우스 수르멜리스의 옛집을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코노스 시내 중심가 트리아 피가디아 지역에 위치한 이 건물은 전통 미코노스 양식으로 19세기에 세워졌다.



### 3. 그리스 산토리니

#### ○ 산토리니 방문

❖ 산토리니는 ‘빛에 씻긴 섬’이다. 하얀 골목, 파란 교회당, 담장을 치장한 붉은 부겐빌레아마저 선명하다. 엽서를 보며 동경했던 바닷가 마을은 현실과 조우하면 더욱 강렬하다. 에게해의 탐나는 섬, 산토리니는 그런 눈부신 풍경을 지녔다.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렇게 썼다. “죽기 전에 에게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고 소설 속에서 에게해의 섬들은 현실을 꿈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산토리니를 대표하는 풍경인 이아마을. 흰색으로 치장된 가옥과 골목들이 인상적이다.

400개가 넘는 꿈같은 섬 중에서도 단연 매혹적인 곳은 산토리니다. CF, 영화, 엽서 속의 모습은 소문과 상상 속에서 더욱 선명하다.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면 산토리니가 그중 하나다.

잔영의 9할은 섬 북쪽 끝 ‘이아’에서 채워진다. 누구나 꿈꾸던 산토리니를 담아낸 마을이다. 화산이 터져 절벽이 된 가파른 땅에 하얗게 채색된 가옥 수백 개가 다닥다닥 붙었다. 푸른 대문의 집들은 흰 미로 같은 골목을 만들고 그 끝에는 파란 지붕의 교회당이 들어섰다. 그런 교회 수십 개가 꽃잎처럼 마을을 수놓는다. 이아에서는 아랫집 지붕은 윗집 테라스가 되고 사람들은 테라스에 누워 에게해의 바람을 맞는다. 양증맞은 기념품 가게를 기웃거리거나 노천카페에 앉아 달달하고 차가운 프라푸치노 한 잔을 마신다. 골목을 배회하며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아의 석양이다.

산토리니는 그리스인들에게 ‘티라’로 불린다. 페리 티켓에도 산토리니라는 말은 따로 없다. 키클라데스 제도최남단의 화산섬인 티라의 변화가는 ‘피라’다.

어느 항구에 내리듯 여행자들은 일단 피라에 집결한다. 테토코폴루 광장 주변에 그리스 전통식당인 타베르나와 가게들이 몰려 있고, 아침녘 거리에 나서면 이곳 주민들이 갓 잡은 생선을 내다 판다.

피라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지만 아직 정겨운 사람냄새가 가득한 곳이다. 만나는 중년의 남성들은 소설 속의 낙천적인 ‘조르바’를 닮았다. 섬 속 풍경과 따사로움은 그리스 본토인 아테네와는 또 다른 분위기다.

절벽 위 호텔들이 운치 있지만 발품을 팔면 방 하나를 저렴하게 독차지하는



호사스러움이 가능하다. 에게해의 섬들은 6~8월이 성수기. 5월과 9월의 산토리니는 절반은 저렴하고 두 배는 한적하다. 섬은 가을을 넘어서면 을씨년스럽고,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과 함께 상가들이 문을 닫기도 한다.

## V 시사점 및 연수 후기

### ○ 시사점(정책 제안)

- ❖ 어떤 일을 할 때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릴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산시는 도시 개발 지역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 시민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 ❖ 우리 문화에 대해 장인정신을 가져야 하며,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스 문화재의 발굴·관리와 보존정책을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하다 보니 행정의 일률화로 문화재 관리가 더욱 뛰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역 개발이라는 공공적인 문제에 앞서 문화재 보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개인 혹은 단체의 재산권과의 충돌 등 어려움이 많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도 도시계획과 결합하여 관광산업을 시스템화해야 할 것이다.
- ❖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복원사업 추진 `파르테논 신전의 경우 세계문화유산 1호로 등재된 문화유적으로서 보존에만 치중하지 않고 적극적인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흔적(터)만 남아 있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우리 아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철저히 세심한 고증을 거쳐 적극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 ❖ 바람과 태양이 좋고 그리스 정부의 지원정책과 천혜의 자연여건으로 그리스에 대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 에너지분야 전문업체 등이 그리스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해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 도매시장 등을 혁신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 ○ 연수후기

- ❖ 대략 1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그리스는 고대 유적의 웅장함과 더불어 자유와 낭만이 공존하는 나라인 것 같다.  
이번 연수는 선진지의 정치·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아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여행이었다.
- ❖ 그리스는 유럽인들의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는 듯 했다. 민주주의를 논했던 광장에는 저녁이 되면 난민들이 나타나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밤에는 그리스인들조차 광장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 밖에도 복지정책, 쓰레기 매립문제 등등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가 있는 듯 했다.
- ❖ 그리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올리브 나무였다. 그리스는 강우량이 연 50mm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라 농업이 발달되지 않았다. 어디를 가보아도 땅에는 대리석이 많이 있다. 이렇게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유로 세계를 제패하였다. 물론 올리브유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들도 올리브유 처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 ❖ 7박9일의 짧은 연수기간이었지만 그리스의 문화 관광과 도시 조성 상태 등 여러 정책들을 체험하면서 국제적 시야가 넓어진 것은 향후 업무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Ⅵ 증빙자료



끝.